

적강소설에 나타난 자의식과 운명의 관계

신 태 수*

< 목 차 >

- I. 문제 제기
- II. 주인공의 자의식과 천상계 유형
- III. 자의식의 추이와 운명 인식의 방향
- IV. 적강소설의 구도로 본 작가층의 세계관
- V. 결론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nsciousness and Destiny in the Jeokgang Novel

Shin, Tae-soo

The behavior of the protagonist in the Jeokgang novel is governed by the Heaven's principle, but sometimes his behavior is not controlled by the principle. This means that the protagonist is not confined solely to the Heaven. In the light of that, we need to look into the Heav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tagonist. We find the following.

First, we find that the protagonist has stronger self-consciousness when he behaves for his own private interest, but has weaker self-consciousness when he behaves for the public interest. In terms of self-consciousness, there are two types of the Heaven: the heaven with the perfect control over the protagonist and the heaven without it.

* 경북대학교 강사

Second, both the narrator and the protagonist agree that destiny can have either absolute power or relative power. When they view destiny as absolute power, the protagonist in the novel complies with his destiny. However, when they view destiny as relative power, the protagonist try to overcome or confront with his destiny.

Third, we classify jeokgang novels as two different categories: novels which reflect the view of the world of merchants and novels which reflect the view of the world of the ruling class. Accordingly, the Jeokgang-novel poses the fundamental question: How the humans should live? And the novels aim at different readers from different classes.

I. 문제 제기

고소설 가운데는 이른바 적강소설이라 지칭되는 작품이 적지 않다. 적강소설은 한결같이 천상계의 仙人이 옥황상제 앞에서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추방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천상계와 지상계가 긴밀한 연관성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흔히들 주인공의 지상적 삶은 철저히 천상계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 일상적인 자아인 주인공이 천상계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기 때문에 주인공이 천상계의 지배하에 놓인다고 하지만, 이런 논의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주인공이 천상계의 도움을 받는다는 점을 들어 주인공이 천상계의 지배권 안에 놓인다고 보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천상계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천상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천상계의 도움을 받으면서 온전히 천상계에 예속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를 분간하면서 주인공과 천상계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적강소설의 주인공은 다양한 사유로 적강을 한다. 옥황상제에게 시각을 잘못 아뢴 죄, 옥황상제전에서 싸운 죄, 남녀간에 애정을 나눈 죄 등등의 다양한 죄목으로 천상선인이 지상계로 유배를 당하게 된다.¹⁾ 유배를 당했으면 유

1) 成賢慶(1981), 《韓國小說의 構造와 實相》, 嶺南大 出版部, 23쪽 참조.

배 당사자는 근신하며 천상계의 질서를 준수해야 마땅하지만, 누구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주인공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천상계의 질서를 충실히 따르는 경우도 있고, 천상계의 질서를 어기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옥황상제전에서 싸운 죄로 적강한 주인공이 전자의 예에 해당되고, 남녀간에 애정을 나눈 죄로 적강한 주인공이 후자의 예에 해당된다. 주목을 요하는 것은 후자 쪽이다. 적강한 처지이면서도 천상계의 미진한 인연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이다. 적강의 사유가 애정문제라면 귀양지인 지상계에서 애정을 노골적으로 추구하지 않아야 할 터인데도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가 관심사이다.²⁾

주人公의 애정 추구는 천상계의 묵인 내지는 방조 때문에 가능하다. 천상계는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면 초월적 존재를 보내어 구원해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佳緣을 맺도록 도와주려 한다.³⁾ 여기서 천상계는 왜 금기 사항을 어긴 주인공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주인공이 질서를 어겼다 하여 가차없이 적강시킨 바 있는 천상계이고 보면 주인공을 돕는 천상계는 분명 애초의 천상계와는 다르다. 애초의 천상계라면 주인공을 계속 압박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통제했어야 맞다. 서슬 퍼런 천상계의 기세가 누그러진 원인은 바로 주인공으로부터 찾을 수밖에 없다. 주인공이 주체적 인식,

2) 대부분의 논자들이 주인공의 天定配匹 찾기를 무조건적으로 천상계의 원리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천정배필 찾기가 천상계의 원리이기보다는 주인공의 논리일 경우가 더 많으므로, 이에 대한 반성적 접근이 필요하다. 《숙향전》을 놓고 흔히들 觀相家가 천상계의 원리를 언급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관상가의 언급 가운데에는 천정배필 찾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양산백전》에서는 양산백의 꿈에 노승이 나타나 추양대가 천정배필이라고 알려준다. 여기서 노승의 언급을 천상계의 계시라 할 수 있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노승이 천상계의 지시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산백이 추양대를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꿈에서 노승을 떠올렸다는 지적도 가능해진다. 이 점에서 천정배필 찾기를 천상계의 원리로 예단하지 말고 주인공의 논리와 연관지을 수 있어야 주인공과 천상계의 미묘한 관계가 포착되리라 여겨진다.

3) 이 점에 대해서는 金一烈(1984), “朝鮮朝 小說에 나타난 孝와 愛情의 對立”, 《朝鮮朝 小說의 構造와 意味》, 螢雪出版社에서 소상하게 다룬 바 있다.

즉 강한 自意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천상계를 이끌었을 가능성이 많다. 천상계가 요구하는 방향을 지상계 차원에서는 운명이라 할 수 있는데⁴⁾, 자의식이 강하면 운명에 맞서는 양상을 보일 것이고 자의식이 약하면 운명에 이끌리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바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적강소설에 나타난 자의식과 운명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따지고자 한다. 적강소설이 운명에 대해서는 어느 작품에서나 높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지만, 주인공의 자의식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다. 애정 추구를 다룬 경우에 강하게 나타나고 가문의 부흥과 왕실 재건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약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적강소설 내에서 자의식과 운명의 관계를 따지자면 적어도 자의식이 강한 경우와 약한 경우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주인공의 적강을 공통 제재로 하면서도 자의식을 달리 하므로, 자의식이 강한 경우와 약한 경우를 한꺼번에 다루어야 자의식과 운명의 관계가 보다 명확히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요청에 부응하는 작품이 적지는 않지만, 필자는 각 경우를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작품 두 편씩을 선정해서 다루고자 한다.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자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작품

《숙향전》(김광순 교수 소장본, 필사본, 140쪽)

《양산백전》(김동욱 교수 소장본, 경판본, 48쪽)

■ 자의식이 약하게 나타나는 작품

《유충렬전》(김동욱 교수 소장본, 완판본, 172쪽)

《곽해룡전》(영창서관판, 활판본, 56쪽)

II. 주인공의 자의식과 천상계 유형

-
- 4) 천상계가 인물에게 요구하는 바는 인과의 법칙에 토대를 둔다. 천상계가 도덕적 정당성에 근거하여 인과응보 내지는 복선화음을 강조하기에 이렇게 볼 수 있다. 천상계의 섭리가 삶의 본질이요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천상계의 섭리는 곧 운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강소설에 나타난 천상계는 양면성이 있다. 한 가지는 아주 엄격하다는 점이다. 엄격한 규율을 두고, 규율을 어기는 자에게는 가차없는 처벌을 내린다. 다른 한 가지는 아주 부드럽다는 점이다. 위기에 빠진 자를 구원해 주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기도 한다.⁵⁾ 천상계가 한편으로 엄격하고 다른 한편으로 부드럽기 때문에 일견 모순되어 보이지만, 주인공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즉 천상계는 주인공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고 주인공이 갖춘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주인공에 따라 천상계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천상계의 모습은 결국 주인공을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 주인공의 모습은 아주 다양하다. 작품마다 처지나 환경이 다른 데다 성향 또한 일정하지가 않다. 주인공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해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듯하나, 주인공의 삶을 사적 차원과 공적 차원으로 나누어 보면 정리가 가능하다. 주인공은 대체로 사적 차원 혹은 공적 차원 중에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삶을 영위한다. 사적 차원과 공적 차원이 뒤섞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비중을 가려보면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신분이 謫降仙人이어서 여타 소설의 주인공과는 달리 색깔이 분명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⁶⁾ 사적 차원에 입각한 경우는 남녀간의 결연을 열망하는 양상을 보이고 공적 차원에 입각한 경우는 가문의 부흥과 왕실 재건을 열망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주인공이 어떤 삶을 영위하든지 간에 천상계의 간섭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 A. 주인공에게 미래의 운명을 알려주고 대비하게 한다.
- B. 주인공이 운명을 어기려 할 때마다 제재를 가한다.
- C.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인공에게 알려준다.

5)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면 구원해 주고 원귀를 환생시켜 인간세계로 내려보내기도 하고 죄 없이 명부에 온 亡者를 鬼籍에서 삭제시켜주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신태수(2002), “귀신등장소설의 본질과 그 변모과정”, 《語文學》 76, 韓國語文學會, 403쪽에서 다룬 바 있다.

6) 黃溟江(1991), “淑香傳의 구조와 東洋의 豫定論”, 《고전소설의 이해》, 문학과 비평사, 147쪽에서는 이런 현상을 ‘우리 전통사회 나름의 선민의식’의 소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D. 초월적 존재를 통해 부모를 찾으라는 지시를 한다.
- E. 주인공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초월적 존재를 보내어 돕게 한다.
- F. 주인공의 지상적 삶이 끝나면 천상계로 불러 올린다.

천상계가 주인공에게 관여하는 양상을 정리해 보았다. 작품마다 전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A ~ F의 배열 순서가 곧 자료의 서술 순서를 가리키지는 않지만, 천상계와 주인공의 관계를 짚어보는 데는 손색이 없으리라 본다. A ~ F에 따르면 천상계가 주인공의 삶에 철저하게 관여한다. A ~ B에서 보듯 천상계가 주인공에게 운명을 알려주고 운명대로 살아가라고 하고, C ~ D에서 보듯 천상계가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신의 과업을 인식하도록 하고, E ~ F에서 보듯 천상계가 주인공을 원래의 자리로 불러 올린다. 천상계가 주인공의 운명, 가치관, 과업의 인식, 사후의 행로 등에 이르기까지 관여한다는 점에서, 천상계가 개입하지 않으면 주인공은 사적 차원의 삶이든 공적 차원의 삶이든 어느 것 하나 원만하게 영위되기 어렵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주인공이 천상계의 요구대로 무조건 따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주인공이 나름대로의 의식을 가지고 대응하기 때문에 천상계의 요구와는 다른 행로를 보일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

주인공은 천상계의 안내를 받기는 하지만, 모두가 천상계의 지배를 받지는 않는다. 여기서 ‘안내’와 ‘지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⁷⁾ 천상계의 안내에 대한 주인공은 반응이 사적 차원에 입각해 있느냐 공적 차원에 입각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점을 눈 여겨 볼 만하다. 사적 차원에 입각한 주인공의 경우는 겉으로는 천상계의 안내를 따르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천상계와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수가 많다. 지엄한 천상계의 안내는 곧 지시와 같을 법한데, 어떻게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이다. 천상계 자체 내에 틈새가 많다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천상계는 초월적 존재나 異人을 보내어 주인공에게 앞날의 행로를 안내하지만, 주인공에게 어떤 삶을 살라는 강요는

7) 연구자들 중에는 ‘안내’와 ‘지배’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천상계가 인간의 삶에 개입하여 단순히 ‘안내’만 하는 데도 ‘지배’로 판단해 버리기 때문인데, ‘안내’와 ‘지배’를 갈라내야 인물의 시각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

특별히 하지 않는다. 즉 ‘어떻게 될 것이다’는 안내는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강요는 없는 편인데, 강요가 없는 것이 바로 틈새가 된다. 사적 차원에 입각한 주인공은 바로 이런 틈새를 파고들어 안내는 받되 지배는 받지 않는다.

1) 숙향 왈 선군언 어디 이스며 성명언 무어시며 원군은 엇더하며 선군 만니 기전은 어디 가 의탁호리요 선여 왈 선군은 낙양쌍 위공의 아달리요 멀기는 숨 천 숨빅 리라 선군 만니기 전은 천티산 마고선네 부인 구호려고 밋서 인간의 나려 왔나이다 <숙향전, 21쪽>

2) (양산백이) 꿈에 낭즈 불의에 이르러 낭즈를 보게 하른 이는 하늘이 날노 호여금 뵈에 가서 추양디 츠즈를 경계호시미라 호고 사승을 니별흔 후 산문을 쪼나 여러 날만인 평강의 이르러 <양산백전, 9쪽>

1)에서 숙향이 월궁시녀에게 부모와 태을진군을 언제 만날 지를 묻고 있다. 부모 만나기와 태을진군 만나기 중 천상계에서 인정하는 것은 부모 찾기가 다.⁸⁾ 태을진군 만나기는 천상계에서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숙향과 태을진군이 은밀하게 애정을 나눈다 하여 지상계로 추방한 천상계가 숙향의 태을진군 만나기를 좋게 볼 수 없음은 불문가지이다. 액운을 몇 번이나 넘겨야만 태을진군을 만날 수 있다며 가급적 숙향이 태을진군을 만나지 못하도록 한다. 천상계가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일을 성사시키자면 나름대로의 방법이 필요하다. 부모 만나기와 태을진군 만나기의 소망을 한꺼번에 언급하는 것은 이 점에서 눈길을 끈다. 즉 숙향은 천상계에서 인정하는 부모 만나기의 소망에다 천상계가 탐탁지 않게 여기는 태을진군 만나기를 끼워 넣음으로써 두 가지 문제가 결국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2)에서는 양산백이 꿈에서 추양대 꿈을 꾸고 난 뒤 하늘이 자신에게 추양대를 찾으라는 계시로 이해한다. 애정 문제로 두 사람을 추방한 천상계가 두 사람의 결연을 지지하기가 어려울 터이

8) 갈대밭에 화재가 났을 때 숙향이 하늘을 우러러 부모의 얼굴이나 보고 죽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 이 기도에 응답하여 천상계의 파견자인 화덕진군이 나타나 숙향을 구원했는데, 천상계에서 부모 만나기를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건만 양산백은 천상계의 지시라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한다.

1)과 2)의 주인공은 상호 처지는 달라도 천상계를 자기 방식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천상계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천상계의 요청과는 반대 방향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킨다. 주인공이 이렇게 한다면 천상계로서는 그냥 있을 수 없을 법하다. 주인공을 다른 세계로 귀양을 보내든지 엄중 처벌하든지 해야 맞지만, 천상계는 그렇지 하지 않고 오히려 돕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천상계의 주재자인 옥황상제가 인정이 많고 융통성이 있는 까닭이기도 하겠으나, 배수진을 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주인공을 도울 수밖에 없는 면도 있다. 주인공은 애정 추구에 실패하면 죽음을 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시한을 모두 채운 뒤 다시 불러들여야 하는 천상계의 입장으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⁹⁾ 결국 《숙향전》에서처럼 구원자를 보내든지 《양산백전》처럼 명부에서 지상계로 다시 내려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 주인공은 자의식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천상계로부터 일정 부분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공적 차원에 입각한 주인공의 경우는 천상계의 질서를 따라잡기에 급급한다. 천상계는 가문과 왕실의 옹호를 제안하고¹⁰⁾ 주인공은 천상계의 요청에 한껏 부응하려 애쓴다. 천상계의 질서에는 틈새가 없다. 초월적 존재나 異人을 보내어 주인공이 몇 살에는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 삶의 노정을 예언하기도 하고 주인공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는 지시까지 내리기도 한다. 즉 ‘어떻게 된다’는 예언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라’는 지시까지 하므로, 주인공이 자의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틈새란 거의 없다. 주인공은 천상계의 예언이나 지시대로 자신의 삶을 맞추는 길만 남아 있다.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결연의 욕망

9) 양산백이 죽어 천상계에 이르자 태을진인이 인간 고락이 미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인간 세상에 되돌려 보낸 것은 그 좋은 예가 된다.

10) 천상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그런 점이 확인된다. 적대자가 주인공의 가문을 해체하고 천자를 축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천상계는 초월적 존재를 여럿 파견하여 주인공을 돕도록 한다. 천상계가 적대자가 아닌 주인공 편에 선다는 점에서 가문과 왕실의 옹호를 제안한다는 지적이 가능해진다.

을 느끼기는 해도 애정 문제는 어디까지나 삶의 부수적인 사안으로 처리된다. 그리고 보면 주인공이 영위하는 공적 차원의 삶은 자신이 필요에 의해 주체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다. 천상계가 공적 차원의 삶을 만들어놓고 이끄는 방향으로 열심히 따라갈 뿐이다.

3) 유성이 이 말을 듣고 송임춘을 밧비 차자가 동 장자를 만난 후의 말을 귀경흐자 하니 이썬 천스마 제 임자를 만나쁘니 벽역 갓탄 소리흐며 빅여 장 토 굴을 너머 뛰어나서 충열의게 달여드려 웃도 물며 몸도 디여 보니 웅장흔 거동 언 일필노 난괴로다 심산 밍호 뉘썬선듯 복헝 흑용이 벽공의 올으난 듯 강산 정괴난 안치의 갈마 잇고 비룡조화난 네 굽의 번듯흔 더 툃 밋티 일점 용인의 삭여썬되 사송 천사마라 하엿거늘 유성이 디회헝야 장자다려 말을 사자 하니 <유충렬전, 74 ~ 76쪽>

4) (곽해룡이) 바회를 치어다보니 놉기 솜빅여 장이나 되는지라 중간에 일층이 잇스니 나는 제비라도 발을 붓치지 못홀지라 평성 힘을 다햐 소리를 지르고 한 번 소리에 일층에 오르고 두 번 소사 이층에 오르고 세 번 소스 계슌 층에 놀나보니 과연 칼이 노헝스되 장이 솜 척이요 금즈로 삭엿스되 적소검 이라 호고 정괴 은은이 두우에 쏘이느니라 마음에 즐겨 칼을 잡고 도라보니 괴이흔 바회 우히 오식이 영농헝거늘 고이히 녀여 살펴보니 석함이 노헝거늘 즈세보니 금즈로 썬쓰되 원국 충신 디원슈 곽헝룡이라 호엿거늘 기탁하니 갑쥬 혼 벌이 드럿거늘 <곽해룡전, 14쪽>

3)에서는 유충렬이 명마 ‘천사마’를 얻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천사마는 천상계에서 예비해 놓은 말인데, 유충렬이 장성한 뒤 송임춘의 명마를 찾아오리라 하여 천사마를 대기시켰던 바이다. 유충렬은 천상계가 파견한 초월적 존재로부터 자신의 과업이 부모와 천자의 구출이라 알고 있으니, 천상계가 제공하는 裝具 一切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 설사 거부감이 있다 하더라도 천상계의 명인지라 어길 수 없게 되어 있다. 4)에서는 곽해룡이 명검 적소검과 갑주 한 벌을 얻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적소검과 갑주는 곽해룡 이외의 인물이 취할 수 없는 물건이다. 석함에 ‘원국 충신 디원슈 곽헝룡이라’ 명시되어 있으니, 오로지 곽해룡만이 주인이 될 수 있다. 유충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로 천상계가 광해룡을 위해 예비해 두었으니, 한 치도 어긋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천상계가 맞추어놓은 시간표에 주인공이 따라가는 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3)과 4)의 주인공은 상호 처지는 달라도 천상계의 틀 안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산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천상계는 삶의 전반적 원칙을 제시할 뿐이고 세부적 행동이나 순간 순간의 마음가짐까지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주인공이 천상계의 반대편에서 서서 자신과 천상계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응시한다면 주체적으로 운신할 여지도 생길 수 있다. 주인공이 시종일관 천상계의 지시만을 충실히 따르기 때문에 더러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기는 해도 어디까지나 천상계의 틀 안에 머물러 있다.¹¹⁾ 따라서 주체적인 운신은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니 주인공의 입장에서 볼 때 천상계란 한 치의 틈새도 없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초월세계이다. 초월세계 앞에 무장 해제한 주인공은 무력하기 그지없다. 탁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낙망하며 죽으려고까지 한다. 죽으려 하면 천상계가 개입하여 죽지 못하게 하므로, 마음대로 죽지도 못한다. 자의식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주인공은 능력도 잃고 죽을 자유조차 잃고 말았다.

이렇게 보니 주인공이 어떤 삶을 영위하느냐에 따라 자의식의 정도가 결정된다. 숙향과 양산백처럼 사적 차원의 삶을 영위하면 자의식이 아주 강하고, 유충렬과 광해룡처럼 공적 차원의 삶을 영위하면 자의식이 아주 약하다.¹²⁾ 자

11) 천상계의 틀 안에 있으면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논자들이 언급한 바 있다. 대표적 논저를 들면 다음과 같다.

김일렬(1991), “劉忠烈傳”, 《古典小說新論》, 새문사.

서대석(1985),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 출판부.

진경환(1993), “영웅소설 통속성 재론”, 《민족문화사연구》 3, 민족문화사연구소.

최혜진(1998), “유충렬전 문학적 형상화 방식”, 《古典文學研究》 13韓國古典文學會.

12) 공적 차원은 곧 약한 자의식으로, 사적 차원은 곧 강한 자의식으로 귀결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공적 혹은 사적 차원이 자의식의 강약을 결정하는 전제 조건은 아니다. 다만 적강소설에서 공적 차원은 주인공의 외부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자의식이 약하게 작용하는 편이고, 사적 차원은 주인공의 내부로부터 주어

의식의 강약은 곧 천상계의 틈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낸다. 자의식이 강한 경우에는 주인공이 천상계와는 반대편에 서기 때문에 그 틈새를 들여다 보지만, 자의식이 약한 경우에는 주인공이 천상계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틈새를 들여다보기가 어렵게 된다. 자의식이 다르니 천상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천상계, 적강선인, 지상계라는 구도 속에서 차이가 생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천상계의 차이는 단순한 작품의 차이를 넘어선다. 즉 작품의 차이는 천상계의 설정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인공의 자의식 때문에 생긴다. 따라서 적강소설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천상계 그 자체가 아니라 천상계에 대응하는 주인공의 자의식이 된다.

자의식에 의거할 때 천상계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틈새가 있는 천상계와 틈새가 없는 천상계가 그것인데, 두 가지의 천상계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주인공에게 이용당하는 모습을 보인다. 천상계의 지시를 여기는 주인공을 제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佳緣을 맺도록 도와준다. 주인공에게 있어서 천상계는 더 이상 준엄하지도 못하고 道德的 當爲의 준거가 되지도 못한다. 한편 후자의 경우는 주인공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끄는 안내자 구실을 한다.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주인공에게 이념을 심어주고 일생의 과업을 상기시킨다. 주인공에게 있어서 천상계는 준엄한 지표이자 도덕적 당위의 준거가 된다. 이렇게 보니 천상계는 고정불변의 성격을 지니지는 않는다. 주인공과의 관계에서 천상계의 성격이 규정되고 역할이 조정된다는 점에서 천상계의 역할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 할 수 있다.

Ⅲ. 자의식의 추이와 운명 인식의 방향

천상계는 천상과 지상이 全一體라는 전제 아래 모든 생명체를 관장하고자 한다. 생명체의 생로병사를 주관하며 모든 생명체가 천상계의 섭리대로 살기를 요망한다. 그렇다고 주인공이 천상계의 섭리대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천

지기 때문에 자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편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3장과 4장에서 이루어진다.

상적 삶을 지향하는 공적 차원의 주인공과는 달리 사적 차원의 주인공은 세속적 삶을 구가하고 있으니, 천상계에 대한 반응이 일정하지 않다. 천상계로부터 떨어져 나왔기에 지상적 존재이기도 하고 천상계의 간섭을 받기에 천상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두 차원의 주인공이 나름대로 정당성을 지닌다. 문제는 모든 주인공이 천상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처지이면서도 어째서 상이한 삶을 사는가 하는 점인데, 천상계의 섭리 즉 운명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화자가 제시하는 운명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런 운명에 대한 주인공의 인식을 고구해 볼 필요가 있다.

1) 우주 일체를 지배하는 필연적이고도 초월적인 힘.

--> 오희라 시운이 불헝히고 조물이 시기흔지 유 주부 세더 부귀 지극헝더니 스롭의 흥진비리가 밋쳐스니 엇지 피할 가망이 잇슬손야 <유충렬전, 10쪽>

--> 고국을 바라보니 마음이 아득히고 처즈를 생각하니 혼빚이 훗터진다 빅수에 눈물이 비 오듯 하니 그 정상이 가궁헝터다. <곽해룡전, 11쪽>

2) 인간의 의지에 따라 바꾸어질 수 있는 삶의 형식.

--> 니랑이 예석의 느긋가 황금 에필의 신인을 발리보니 머리털 숙기고 붓그려움을 먹음어 <...> 이랑이 반갑고 질겨온 마암 엇지 충양헝리 <숙향전, 58쪽>

3) 끈질긴 욕망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금기 및 장벽.

--> 양성의 무덤의서는 반죽이 나고 낭조의 무덤의서는 년출이 나서 더와 년출이 휘휘춘춘 얼키이니 츠 소위 지천의 원위비익조요 지지의 원작 연너지라. <양산백전, 24쪽>

1) ~ 3)에는 화자가 제시하는 운명의 개념이 나타난다. 1)은 화자가 유충렬 부친인 유심과 곽해룡 부친인 곽충국이 각기 간신의 모함을 받아 귀양가는 장면에서 한 말로서,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운명은 막강한 위력을 지닌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힘이 너무 미약해서 아무리 해도 운명을 넘어설 수 없다. 2)는 화자가 숙향과 이선이 부모 허락 없이 결합하는 장면에서 한 말로서, 인간의 의지에 따라 운명의 힘이 결정된다는 점을 밝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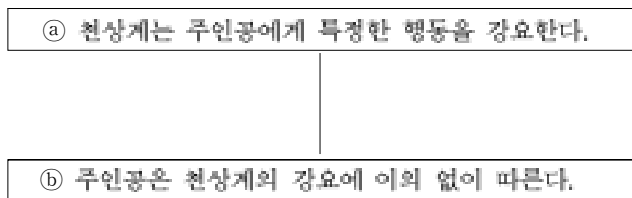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의 조건에 따라 운명의 힘이 강하게 혹은 약하게 느껴지게 된다. 3)은 화자가 양산백과 추양대가 죽은 뒤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장면에서 한 말로서, 사회적 장벽도 인간의 끈질긴 욕망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간이 강한 집념과 의지를 지닐 때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극복이 가능하다. 1) ~ 3)을 총괄해 보면 운명은 인간에 대해 절대적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인간에 대해 상대적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양분된다. 1)은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고 2)와 3)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운명의 개념이 이처럼 달라지는 현상이 이채롭다. 운명이 구상적 대상이 아니어서 운명의 개념이 달라질 여지가 있기는 한데, 이만으로 차이가 설명되지는 않는다. 개념의 차이는 곧 관점의 차이이다. 다시 말하면 화자가 운명에 대해 관점을 달리 하기에 개념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화자가 운명에 대해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관점을 취하면 상대적 위력이 강조되고, 화자가 운명과 거리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관점을 취하면 절대적 위력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동일한 관점 내에서도 개념이 달라지는 수가 있기는 한다. 2)와 3)에서 화자가 운명과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관점을 취하는데도 개념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2)는 삶의 외면적 형식에 근거를 두고 있고 3)은 사회의 경직된 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보기에 따라서는 개념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그러나 어느 쪽의 개념이든 간에 인간의 힘으로 운명을 극복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동일한 범주에 들어 있다.

화자가 제시하는 운명의 개념은 주인공의 운명 인식에 토대를 둔다. 즉 주인공이 운명을 절대적 위력으로 혹은 상대적 위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화자도 그렇게 파악한다고 볼 수 있다. 화자가 주인공의 인식과는 상관없이 운명의 개념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적강소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화자가 주인공의 인식과는 상관없는 운명의 개념을 표명하자면 적어도 화자의 시각과 주인공의 시각이 달라야 가능할 터인데, 그런 사례는 찾을 수가 없다. 화자의 시각과 주인공의 시각이 다른 현상은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를 갖춘 판소리계 소설에서나 나타난다.¹³⁾ 주지하다시피 판소리는 가창 과정에서 형성되는 ‘부분의 독자성’ 때문에 화자의 시각과 주인공의 시각이 달라지고 주

제가 이원적으로 표출된다. 적강소설은 그런 창작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판소리계 소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화자의 인식이 곧 주인공의 인식이 되는 셈이므로, 주인공의 인식을 점검해 보고 화자의 시각을 가늠해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유충렬전》과 《곽해룡전》의 주인공은 운명의 힘이 절대적이라고 인식한다. 운명의 힘이 워낙 막강한지라 주인공은 천상계의 섭리를 운명이라 여기고 그런 섭리에 충실히 따르고자 한다. 《유충렬전》의 경우에는 주인공이 가인과 결연하는 장면이 있어서, 천상계와 맞서는 방향으로 전개될 듯도 하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천상계의 섭리에 맞추어 애정 문제보다는 가문의 부흥과 왕실 재건이라는 데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천상계의 섭리에 맞추어 삶의 목표를 상향조정하자 천상계가 나서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도움을 준다. 특정 조직 속에 들어온 인물을 조직 차원에서 보호하듯, 천상계의 질서와 체계 속에 종속된 주인공을 천상계 차원에서 보호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주인공이 바위 위에서 울고 있거나 유리걸식하는 처지에 이르자, 초월적 존재를 보내어 주인공에게 과업을 인식시키는 한편 막강한 능력을 지니도록 조련하는 현상은 그 좋은 예가 된다. 천상계에 대한 주인공의 종속관계는 다음 도표를 통해 보다 선명히 파악할 수 있다.



①는 천상계의 지시를 나타내고 ②는 주인공의 행동을 나타낸다. ①가 있고 난 다음에 ②가 이어지는데, 천상계는 초월적 권능으로 주인공에게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주인공은 아무런 이의 없이 천상계의 권능을 섭리로 받아들인다.

13) 조동일(1983), “興夫傳의 兩面性”, 《韓國古典小說研究》, 새문社, 552 ~ 553쪽 참조.

천상계 없이는 주인공도 존재하기 어려우니, ㉞는 ㉠에 의존적이고 종속적이다. 그런 증거를 《유충렬전》에서는 3차례나 《곽해룡전》에서는 4차례나 확인할 수 있다.¹⁴⁾ 3차례 혹은 4차례나 이루어지는 ㉠ - ㉞의 관계는 바꾸어 말해 천상계가 주인공을 돕는 회수를 가리키기도 한다. 천상계가 주인공을 돕는 방식은 초월적 존재의 파견, 명마와 명검 및 갑주의 제공 등으로 위기를 헤쳐나 가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런 도움은 주인공의 가치관을 크게 바꾸어놓는다. 처음에는 부모와의 재회만을 꿈꾸는 개인적 차원에 서 있지만, 점차 나라와 천자를 구해야 한다는 집단적 차원으로 방향을 바꾼다. 이런 변화는 주인공 스스로의 욕망 때문이 아니고 천상계가 부여한 욕망 때문이라는 점에서 他者化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타자화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천상계와 주인공의 거리는 그만큼 좁혀진다.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곽해룡전》의 경우보다는 《유충렬전》의 경우가 거리감이 더욱 없는 편이다. 천상계를 지고하고 신성하다고 여기고 천상계의 주체적 역할에 수궁하는 정도가 《유충렬전》의 경우가 《곽해룡전》의 경우보다 훨씬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천상계와 주인공 사이에 거리감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천상계가 영웅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실체로 부각된다는 점이다. 주인공은 천상계의 섭리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자의식을 묶어 놓음으로써 스스로를 규격적으로 만들어 간다. 이로써 천상계는 특수하고 개인적이지 않고 보편적이고 집단적인 이념을 지니게 되었다. 둘째, 인간의 삶이 천상계에 철저히 포함된다. 주인공의 자의식이 천상계가 제시한 과업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불가피하다. 이로써 운명은 결정되

14) ● 《유충렬전》의 경우

① 노승의 명에 따라 백용사에 머물면서 병서를 배운다. ② 노승이 국가 변란이 났음을 알리고 천자를 구출하라 한다. ③ 노승의 명에 따라 송임촌에 가서 천사마를 취한다.

● 《곽해룡전》의 경우

① 응전도사가 설산도로 가지 말고 자기를 따라 용문산으로 가자고 한다. ② 응전도사의 명에 따라 무예를 배운다. ③ 응전도사가 국가 변란을 알리고 세상에 내려가 공을 이루라 한다. ④ 응전도사의 명에 따라 두문동의 노인에게서 명마를 취한다.

어 있으며 전적으로 따르는 길밖에 없다는 인식이 주인공에게서 생겨난다.

한편 《숙향전》과 《양산백전》의 주인공은 운명의 힘이 상대적이라고 인식한다. ‘상대적’이란 운명과 주인공의 우열관계를 따지는 데서 나올 수 있다. 우열관계를 따지자면 자신과 상대방의 위상을 냉철하게 건줄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주인공이 바로 그런 눈을 지니고 있다. 주인공은 문제 해결이 쉬울 때는 자력으로 감당하고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는 초월적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숙향이 태을진군의 존재를 확인할 때나 갈대밭에 불이 났을 때 초월적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과 양산백과 추양대가 환생을 열망하여 옥황상제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도움을 요청한다 해서 천상계의 섭리에 예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요청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청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숙향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인을 만나려 하고 양산백과 추양대는 시공을 초월하여 가연을 맺으려 했다. 남녀간의 정욕에 대해서는 천상계가 전폭적으로 찬동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고려하면, 주인공이 천상계에 대해 독자적 위상을 점한다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의 독자적 위상은 다음 도표를 통해 보다 선명히 파악할 수 있다.

㉑ 주인공은 천상계에 도움을 요청한다.

㉒ 천상계가 주인공 앞에 놓인 난관을 해결한다.

㉑는 주인공의 요청 사실을 나타내고 ㉒는 천상계의 섭리를 나타낸다. ㉑가 있고 난 다음에 ㉒가 이어지는데, 주인공이 요청을 하고 천상계가 그에 응답하는 경우이거나 요청의 내용이 뚜렷하지 않지만 정황으로 보아 주인공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 ㉑ - ㉒의 관계가 《숙향전》의 경우는 6차례 확인되고 《양산백전》의 경우는 2차례 확인된다.¹⁵⁾ 6차례 혹은 2차례나 ㉑ - ㉒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초월계의 섭리가 인간적 욕망에 일방적으로 이끌린다고 할 수는 없다. 천상계가 주

인공을 앞질러 도와주지 않을 뿐더러 주인공의 간절한 요청이 있을 때만 한 가지씩 도와준다는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 - ㉡의 관계는 주목에 값하는 바가 있다. 부분적이거나 초월계의 섭리가 인간적 욕망보다 상위에 있는 일반적 경향을 깨고, 주인공의 욕망이 초월계의 섭리를 통하여 나감으로써 인간적 욕망에 대한 초월계의 섭리를 의존적이고 종속적으로 조성해 나갔기 때문이다.

대상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이에 대한 우위 확보를 對自化라 할 때, 천상계에 대한 주인공의 통어는 바로 대자화에 다름 아니다. 대자화 현상을 미루어 가면 자의식의 정도에 따라 주인공이 얼마든지 천상계의 섭리를 조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언급이 가능해진다. 천상계는 지고하고 신성해서 주인공을 이끌어야 제격일 듯하지만, 대자화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일반적 상식이 여지없이 깨어진다. 그런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천상계가 俗化되었다는 점이다. 천상계는 예정된 섭리를 앞세워 주인공을 일정한 틀 안에 가두어 두려 했지만, 도리어 주인공의 자의식에 말려들어 초월자의 위치에서 동조자의 위치로 내려 왔다. 이로써 규범적인 질서는 가변적인 상황논리로 바뀌었다. 둘째, 천상계의 섭리가 인간의 삶 속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주인공은 천상계의 섭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과업

15) ● 《숙향전》의 경우

① 부모와 헤어진 뒤 배가 고파 울고 있으니,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춤지 않게 해 준다. ② 후토부인의 시녀가 되기를 원하니, 후토부인은 瓊液을 주어 천상의 일을 기억하게 한다. ③ 후토부인에게 누구에게 의탁할지를 물으니, 흰 사슴에 태워 장 승상택으로 가게 한다. ④ 월궁소아에게 자신의 액운이 얼마나 남아 있으며 태을진군의 정체는 무엇인가를 물으니, 월궁소아가 소상하게 말해 준다. ⑤ 갈대밭의 불길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하늘에 비니, 화덕진군이 나타나 구출해 준다. ⑥ 갈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다고 하니, 마고할미가 주막에 기거하게 한다

● 《양산백전》의 경우

① 명천에게 추양대를 만나게 해 달라고 비니, 명천이 꿈 속에서 추양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② 양산백이 태을진인에게 후생연분을 잇게 해달라고 청하니, 태을진인이 지장왕에게 요청하여 양산백과 추양대를 환생하게 한다.

16) 만약 앞질러서 도와준다면 숙향은 태을진선과 부모를 곧 바로 만났을 터이고 양산백은 죽음에 이르지 않고도 가연을 이루었을 터이다.

을 추구하는 명분으로 활용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써 천상계의 섭리, 즉 운명은 만들어가야 할 대상이고 주인공은 그런 운명을 만들어 가는 존재라는 점이 부각된다.

이렇게 볼 때 주인공은 운명의 힘에 대해 타자화 혹은 대자화의 양상을 보인다. 자의식의 측면에서 볼 때, 타자화일 경우 자의식이 미약해지고 대자화일 경우 자의식이 뚜렷해진다. 자의식의 강약은 천상계에 대한 주인공의 의존도를 가리킨다. 의존도가 높으면 ‘있는 것’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의존도가 낮으면 ‘있어야 할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어느 쪽이든 운명을 주인공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매일반이다. 주지하다시피 적강소설은 인간과 세계의 합일이 깨어진 상태를 인간의 측면에서 다루었다. 천상계의 선인이 천상계로부터 떨어져 나와 지상계에서 새로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좋은 증거가 된다. 자의식은 하찮은 인간의 심적 작용이고 운명은 초월적 힘이라 하여 자의식과 운명을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있는 바인데, 양자의 관계를 긴밀하게 설정한 데는 인간의 삶을 중심으로 운명을 이해하려는 의도가 적강소설에 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적강소설 전체를 주인공의 시각에서 조망해 보면 운명은 있되 정해져 있지 않다. 자의식이 강도에 따라 운명 인식의 방향이 달라질 따름이다. 결국 주인공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외부의 보이지 않는 힘에서 찾느냐 자기 내부의 주체적 힘에서 찾느냐에 따라 자의식도 달라지고 운명의 강도도 달라지는 셈이 된다. 물론 자의식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높게 평가할 일은 아니다. 능력에 비해 주어진 문제가 클 때 자의식을 벗어나 외부의 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어떤 문제에 어떤 자의식으로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 적강소설에는 한결같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를 설정해 놓고 주인공의 접근 태도를 다루고 있다. 사적 차원에 입각한 주인공은 큰 문제를 강한 자의식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공적 차원에 입각한 주인공은 외부의 힘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두 부류의 주인공이 각기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함으로써 운명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IV. 적강소설의 구도로 본 작가층의 세계관

적강소설에 따라 자의식과 운명의 관계가 사뭇 다르다. 자의식 속에 운명이 포함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운명 속에 자의식이 포함되는 작품도 있는데, 양자의 관계가 이처럼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은 작가층의 세계관이 일정하지 않은 데 있다. 주인공의 형상은 작가층의 세계관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때, 주인공의 자의식 속에 운명이 포함되는 경우는 작가층이 운명에 도전적 자세를 취하고 주인공의 운명 속에 자의식이 포함되는 경우는 작가층이 운명에 순응적 자세를 취한다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이 보여주는 자의식의 강도는 작가층의 가치관이나 성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지만, 작가층 자체를 일차적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작가층과 관련된 정보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가층의 세계관은 어디까지나 주인공의 가치관이나 성향을 통해 밝혀낼 수밖에 없다.

주인공의 면모를 전반적으로 이해하자면 적강소설의 전체 구도를 고려해야 한다. 적강소설은 천상계, 주인공, 적대자라는 삼자가 서로 얹혀서 전체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인공과 적대자의 투쟁, 주인공의 소망 성취가 이루어지는 곳이 지상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된 사건의 무대는 어디까지나 지상계이다. 지상계를 축으로 한 주인공과 적대자의 관계를 1차 층위라고 한다면 주인공을 통어하는 천상계는 2차 층위라 할 수 있다. 주인공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삼자의 重層 構造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2차 층위가 없는 상태에서 1차 층위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점검하고 2차 층위가 덧붙여지면서 1차 층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요청에 의거하여 우선 2차 층위를 건너내고 1차 층위만을 대상으로 하여 주인공의 면모를 살피기로 한다.

■ 《숙향전》

- 1) ㉠ 장 승상택의 고공 노릇을 하며 가사를 돌본다.
- ㉡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지 않고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
- 2) ㉠ 주막 ‘이화정’에서 기숙하면서 수놓기를 한다.
- ㉡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품위는 반드시 지킨다.
- 3) ㉠ 이선이 부모 몰래 결혼하자는 제의를 해온다.

㉞ 망설임 없이 情人과의 결연을 추진한다.

■ 《양산백전》

- 1) ㉠ 양산백과 추양대의 결연을 두 집안의 부친 모두가 반대한다.
 ㉡ 두 주인공은 한번 마음먹은 일에 대해서는 이목을 꺼리지 않는다.
- 2) ㉠ 추양대가 타인과 결혼함으로써 양산백은 비탄에 잠긴다.
 ㉡ 두 주인공 모두 오매불망하며 결연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 3) ㉠ 추양대는 신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산백의 무덤 곁으로 간다.
 ㉡ 추양대가 양산백의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먼저 《숙향전》과 《양산백전》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면모를 파악하기 위해 1차 층위를 정리해 보았다. ㉠은 처지나 상황을 나타내고 ㉡는 대응 태도를 나타낸다. ㉠과 ㉡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두 작품은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3)-㉡가 삶의 최우선 목표이고 그 이외의 항목은 3)-㉠에 부속되기 때문에, 3)-㉠을 고리로 해서 두 작품의 주인공이 보여주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情人과의 결연이 3)-㉡의 주된 내용인데, 이런 대응태도는 주인공의 본능적 욕망을 토대로 한다. 두 작품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시대는 가부장제가 엄격하게 유지되고 윤리도덕이 규격화되어 있으므로, 사회 규범을 벗어난 개인의 본능적 욕망은 용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숙향전》에서 이선의 부친인 이 상서가 숙향을 죽이려 했던 것이나 《양산백전》에서 兩家の 부친이 결연을 반대했던 것은 모두 이런 차원에서 이해된다. 이미 살핀 바 있듯이 주인공은 사회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다. 차라리 꺾일지언정 절대로 굽히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외부의 간섭에 맞서고자 한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자 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인공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의식을 분명하게 지녔기에 의지가 강할 수 있었다. 숙향의 경우 유랑민의 처지이면서도 빌붙을 곳을 잘도 찾아낸다. 장 승상댁에서 고공살이를 하는가 하면 주막 ‘이화정’에서는 수놓기를 하기도 한다. 험한 일을 하므로 우여곡절이 생길 여지도 그만큼 많은데, 고공살이를 하면서 시비 추향의 모함을 받기도 하고 ‘이화정’에서 수놓기를 하면서 창녀로 인식되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듯도 하지만, 직업의 성격을 놓

고 비판하는 법이 없다. 어떤 직업이든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양산백의 경우 명문거족의 후예로서 자기 일에 집착력이 아주 강하다. 외골수라 할 정도로 자신의 소원을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보여준다. 추양대와 결연할 수 있는 길이 막히자 명이 끊어지고 만 것은 그 좋은 증거가 된다. 결국 숙향과 양산백은 세계관이 투철하고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은 세계관과 의지가 비범하고 사회 규범은 주인공을 용납하지 않으려 하니 충돌은 불가피하다. 주인공은 개인이고 사회 규범은 집단적이어서 양자가 맞붙는다면 승부는 불을 보듯 뻔하다. 2차 층위 즉 천상계는 이 점에서 유용한 기능을 한다. 천상계는 옥황상제의 지침을 섭리로 삼는 조월계이다. 옥황상제의 지침이 분명치는 않으나 주인공의 삶을 들여다보면 짐작이 된다. 주인공이 죄를 지었다 하여 귀양보내고 천상계의 지시를 지켰다 하여 원래의 자리로 복귀시키는 것으로 보아 인과응보 내지 복선화음의 원칙이 옥황상제의 지침이라 할 만하다.¹⁷⁾ 인과응보 내지 복선화음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원칙일 뿐이고 細則은 아니다. 세칙은 정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원칙을 헤아려 세칙을 시행할 수도 있고 원칙을 자신의 욕망에 맞추어 세칙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 《숙향전》과 《양산백전》의 경우에는 후자 쪽이 나타난다. 천상계의 원칙과 세칙을 분리함으로써 주인공은 자신의 욕망을 거리낌없이 추구하면서도 인과응보 내지 복선화음의 원칙에 입각해 있음을 내세울 수 있게 되었다.

■ 《유충렬전》

- 1) ㉠ 모친과 헤어진 뒤 유리걸식하면서 정처 없이 돌아다닌다.
- ㉡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불행을 팔자 소관으로 돌린다.
- 2) ㉠ 장 승상택을 나온 뒤 갈곳이 없어 산 속으로 들어간다.
- ㉡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상과 단절된 곳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7) 黃中允, “玉皇記”, 《三皇演義》에는 옥황상제의 지침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福善禍淫은 피해 갈 수 없다. 악인이 화를 면하면 그 자손에게라든가 반드시 징벌을 내리고, 선인이 빈천하게 되면 그 자손에게 반드시 부귀를 내린다고 한다. 車溶柱(1989), 《韓國漢文小說史》, 亞細亞文化社, 255쪽의 해설 참조.

- 3) ㉓ 부모를 만나고 천자를 구하기 위해 여러 공간을 종횡으로 이동한다.
- ㉔ 악인을 무찌르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자 한다.

■ 《곽해룡전》

- 1) ㉓ 간신의 모함을 받아 설산도로 귀양간 부친을 찾아간다.
- ㉔ 難局을 극복하고자 할수록 자신이 힘이 없음을 절감한다.
- 2) ㉓ 부친의 적소에 가기를 포기하고 응전도사를 따라간다.
- ㉔ 응전도사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
- 3) ㉓ 부모를 만나고 천자를 구하기 위해 여러 공간을 종횡으로 이동한다.
- ㉔ 악인을 무찌르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자 한다.

《유충렬전》과 《곽해룡전》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면모를 파악하기 위해 1차 층위를 정리해 보았다. 두 작품은 《숙향전》과 《양산백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인다. ㉓가 처지나 상황을 ㉔가 주인공의 대응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이 동일하고, 3)-㉔가 삶의 최우선 목표가 된다는 점도 동일하다. 3)-㉔는 두 작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 3)-㉔를 공통 항목이라 하고 그 이외의 항목을 개별 항목이라 할 때, 공통 항목에서는 초월적 존재로부터 이입된 행동 양상이 나타나고 개별 항목에서는 주인공이 본능에 입각한 행동 양상이 나타난다. 여기서 공통 항목이 유형성을 지니고 개별 항목은 개성을 지닌다는 지적이 가능해진다. 서사전개상 개별 항목이 공통 항목보다 먼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동 양상은 개성을 지니다가 점차 유형성을 지니는 쪽으로 이행한다고 할 수 있다. 행동 양상이 유형성을 지니면서 주인공의 욕망이 사적인 데서 공적인 데로 이행하므로, 주인공이 각기 지닌 면모를 알아 보자면 당연히 개별 항목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개별 항목에 나타난 두 주인공은 세계에 대응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대응 의지도 약하다. 대응 방법이나 의지가 약한 원인은 적대자는 크게 보고 자신은 한없이 작다고 느끼는 데서 비롯된다. ‘주체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객체의 자리로 물러나 있는 상태’를 疎外라 할 때, 두 주인공은 바로 소외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소외의식에 사로잡힌 자가 환경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가질 리가 없다. 주인공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지만 항상 낮설어 하고 머뭇거리는 양상을

보이는데¹⁸⁾, 환경으로부터도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는 증거가 된다. 주인공이 적대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므로, 적대자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킨 주인공이 환경으로부터도 자신을 소외시킨다고 할 수 있다.¹⁹⁾ 주인공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소외시킬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가 가중되는 현상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주인공은 태생적으로 영웅적 자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질을 인식하지 못한다. 스스로 무예를 연마할 수도 없고 자신에게 부과된 과업도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는 현상이 이래서 생긴다.

자신의 힘이 미약하다고 느끼니 모든 것을 외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즉 ‘절대적 힘의 원천’을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원천에 자신의 전부를 귀속시키고자 한다. 이 점에서 2차 층위인 천상계는 주인공에게 아주 든든한 후원인이다. 주인공에게 있어서 천상계는 ‘절대적 힘의 원천’이니, 천상계의 지침인 인과응보 내지 복선화음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원칙의 구체적 실천 방안 즉 세척도 이에 걸맞게 시행해야 한다고 여긴다. 문제는 세척이 자신의 욕망과 부합하느냐에 있다. 주인공은 원래 부모 찾기만 열망했을 뿐이고 임금 구하기는 열망하지 않았으나, 천상계의 원칙에 맞추다 보니 임금 구하기를 삶의 궁극적 목표로 상정하게 된다. 임금 구하기의 소망이 부가되면서 주인공의 정체성은 급변한다. 현실적 세척에서 이념적 세척으로의 변동이 일어난 셈인데, 천상계의 원칙에 의해 세척이 견인된 결과이다. 주인공은 세척을 천상계의 원칙에 맞추어 소외를 극복하려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 자신을 객체로 전략시킴으로써 도리어 소외만 증폭시키는 형국에 이르고 말았다.

논의의 결과, 처지나 상황에 대한 주인공의 대응 태도에서 그 면모가 다르

18) 해매는 양상이 물론 같지는 않다. 《유충렬전》의 주인공이 정처 없이 해매므로 곡선적이라고 한다면, 《곽해룡전》의 주인공은 부친의 적소를 향해 가므로 직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곽해룡전》의 경우 《유충렬전》의 주인공보다 목표의식이 더 있는 듯이 보이지만, 뚜렷한 의도가 있어서 적소로 가는 것이 아니기에 별반 차이가 없다.

19) 趙東一(1977), “英雄小說 作品構造의 時代的 性格”, 《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産業社, 327쪽에서는 유충렬의 이런 면모를 “영웅 아닌 영웅”, “일상적 인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게 나타난다. 그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계에 대응하는 양상이 다르다. 《숙향전》과 《양산백전》에서는 대응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유충렬전》과 《곽해룡전》에서는 대응력이 약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② 천상계의 원칙과 이에 따른 세칙의 결속관계가 다르다. 《숙향전》과 《양산백전》에서는 양자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유충렬전》과 《곽해룡전》에서는 세칙을 원칙에다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③ 세계에 대한 주인공의 위상이 다르다. 《숙향전》과 《양산백전》에서는 주체의 자리로 이행하는 방향으로 《유충렬전》과 《곽해룡전》에서는 객체의 자리로 이행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① ~ ③은 결국 1차 층위인 지상계와 2차 층위인 천상계가 결합하면서 주인공의 면모가 변별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면모가 변별되니 자의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숙향전》과 《양산백전》에서는 공격적 성향으로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일구어가므로 자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고, 《유충렬전》과 《곽해룡전》에서는 방어적 성향으로 가치관을 수동적으로 일구어가므로 자의식이 약할 수밖에 없다.

《숙향전》·《양산백전》과 《유충렬전》·《곽해룡전》이 차이를 드러내는 까닭이 관심사이다. 이 문제는 창작방법과 연관되므로, 창작방법을 염두에 두면서 주인공을 주목해야 해명이 가능하다. 전체 주인공은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①에서는 ‘세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 ②에서는 ‘천상계의 원칙에 대해 세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 ③에서는 ‘세계에 대한 인간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적강소설은 ① ~ ③을 모두 다루면서도 작품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즉 《숙향전》·《양산백전》의 경우는 세계에 대응하는 힘을 강화시키고 원칙과 세칙을 분리시키고 주체의 자리로 이행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창작방법을 구사하고, 《유충렬전》·《곽해룡전》의 경우는 세계에 대응하는 힘을 약화시키고 세칙을 원칙에다 귀속시키고 객체의 자리로 이행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창작방법을 구사한다. 《숙향전》·《양산백전》은 천상계에 비해 주인공의 역할을 중시하므로, 현실적 삶을 겨냥한다고 할 수 있고, 《유충렬전》·《곽해룡전》은 주인공에 비해 천상계의 역할을 중시하므로 관념적 삶을 겨냥한다고 볼 수 있다.

모두 같은 적강소설인데도 창작방법이 왜 이다지 달라지는지가 새로운 관심

사이다. 창작방법을 구사하는 주체가 작가이므로, 작품을 통해 작가의 측면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창작방법이 달라지는 요인으로 경제동향이나 사회동향을 손꼽기는 어려울 듯하다. 경제동향이라면 물질 중시의 풍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사회동향이라면 신분 변동이나 직업관의 변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적강소설 모두에서 이 중 어느 쪽이나 선명치가 않기 때문이다.²⁰⁾ 작가가 실제로는 경제동향이나 사회동향에 민감하다손 치더라도 적강소설에 그런 면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상, 창작방법이 달라지는 주된 변수라 할 수는 없다. 천상계의 초월적 존재가 주인공에게 운명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고 주인공이 이에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상기할 때, 작가의 운명관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순리이다. 《숙향전》·《양산백전》의 주인공이 운명에 저항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현실적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유충렬전》·《곽해룡전》의 주인공이 운명에 순응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관념적 삶의 가치를 드러낸다는 점만 보더라도 각 작품의 작가가 운명을 얼마나 중심자리에 두는지를 알 수 있다.

적강소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운명이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현실적인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운명이 동원되고 관념적인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운명이 동원되기 때문이다. 경제동향이나 사회동향의 반영 없이 운명관을 적실하게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터이지만, 천상계, 지상계, 주인공이라는 요소를 통해 전체 구도를 마련함으로써 예상되는 한계를 상쇄하고 있다. 운명관이라고 하면 단순히 팔자 소관이라든가 삶의 굴레를 의미하지 않는다. 현실적 삶과 관념적 삶을 통해 천상계의 섭리와 이에 대한 인간의 대응 자세를 그리고 있으니, 천상계와 인간의 관계론 즉 天人關係論이라고 해야 적절하다. 인간을 중심으로 볼 때 천인관계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천상계가 예정한 운명이 인간에게 맞지 않으면 그런 운명에 저항해야 한다는 쪽과 천상계가 운명을 점지하므로 인간이 운명을 따라가야 한다는 쪽으로 양분되는데, 두 쪽의

20) 《숙향전》에서는 직업을 두 번이나 바꾸고 있어서 직업 선택과 관련된 사회동향이 나타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직업이 숙향에게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숙향의 세계관이 직업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동향이 주된 변수가 되지 못한다.

주장이 상당히 팽팽히 맞서 있다.²¹⁾ 운명을 너무 대극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양자의 중간적 입장은 나타나기 어려울 것 같다.

천인관계론의 양분 현상은 곧 작가의 의식이 양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인공과 작가층을 연결시켜보면 이 점은 바로 드러난다. 《숙향전》과 《양산백전》의 주인공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자기 내부의 힘에서 찾고자 했는데, 이런 작품의 작가라면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 계층의 의식과 연관이 있을 법하다. 물질적 능력을 보유하고 세계에 대해 자신감을 가진 계층, 이를테면 상공업자나 중소지주층의 의식과 궤를 같이 하는 계층일 가능성이 많다. 《유충렬전》과 《곽해룡전》의 주인공은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제 해결의 열쇠를 외부의 힘에서 찾고자 했는데, 이런 작품의 작가라면 외부의 지고한 권위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 계층의 의식과 연관이 있을 법하다. 상하의 분수를 강조하고 지배체제를 안정시키려는 계층, 이를테면 위정자나 권력집단의 의식과 궤를 같이 하는 계층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작가끼리의 대극적인 세계관은 결국 삶의 기반이 다른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주인공의 면모가 대극적으로 양분되듯이 작가층의 세계관 또한 대극적으로 양분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장소설이라면 어느 작품이든 유사한 구도를 지니고 있음에도 작가층의 세계관이 이처럼 양분되는 현상은 결국 천상계의 섭리에 대한 시각이 서로 다른 데서 연유한다. 즉 삶의 중심을 천상계의 섭리에 두느냐 주체적 의지에 두느냐에 따라 세계관이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 천상계가 단순히 지상계와 대응되는 의미로 읽히지는 않고 있다. 천상계는 봉건제도 혹은 통치질서라는 또 다른 의미를 함의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작가층이 겉으로는 지상계와 대응되는 천상계를 거론하면서도 실제로는 봉건제도 혹은 통치질서를 의미하는 천상계를 거론했다는 편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면 적장소설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란 질문을 마련해

21) 憑寓(1988), 《天與人》, (김갑수 옮김(1993), 《천인관계론》, 신지서원), 267 ~ 279쪽에서는 宋明 이후의 사상계에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에 의거하면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쪽과 인간의 욕망을 부정하는 쪽이 혼재하는 시대에는 어디서나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놓고 세계관이 서로 다른 계층을 끌어들이어 논쟁을 붙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적강소설에는 천상계의 원리만으로 주인공의 특징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주인공이 천상계의 원리를 벗어나서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주인공이 全一하게 천상계에 매속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천상계의 원리 속에 매몰된 주인공을 건져 올려 주인공의 시각에서 천상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여기서 생긴다. 이에 필자는 주인공의 시각에서 자의식과 운명의 관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인공의 삶은 사적 차원과 공적 차원으로 대별된다. 사적 차원에 입각한 주인공의 경우는 자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공적 차원에 입각한 주인공의 경우는 자의식이 미약하게 나타난다. 자의식에 의거할 때 천상계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틈새가 있는 천상계와 틈새가 없는 천상계가 그것인데, 전자는 주인공에게 이용당하는 양상을 보이고 후자는 주인공을 지배하는 양상을 보인다.

둘째, 화자와 주인공은 운명을 절대적 위력으로 혹은 상대적 위력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운명에 대해 동일한 시각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화자가 제시하는 운명의 개념이 주인공의 운명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운명의 힘을 절대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타자화 양상을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대자화 양상을 보인다. 자의식의 측면에서 볼 때, 타자화일 경우 자의식이 미약해지고 대자화일 경우 자의식이 뚜렷해진다. 셋째, 1차 층위인 지상계와 2차 층위인 천상계의 분리시킬 때 주인공의 면모가 더 잘 드러난다. 《숙향전》과 《양산백전》의 경우는 자의식이 강한 주인공과 완강한 사회 규범과의 사이에 충돌이 불가피한데, 천상계가 덧붙여짐으로써 주인공은 인과응보 내지 복선화음의 원칙을 표방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거리낌 없이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유충렬전》과 《곽해룡전》의 경우는 주인공이 스스로 자신의 힘이 미약하다고 느끼던 바인데, 천상계가 덧붙여짐으로써

주인공의 외부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말았다.

넷째, 적강소설의 작가층은 운명관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대극적인 사고방식을 치열하게 드러내고자 있다. 천상계와 인간의 관계를 天人關係論이라 할 때, 천인관계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人이 天에 저항해야 한다는 쪽과 순응해야 한다는 쪽이 그것이다. 전자는 상공업자나 중소지주층의 의식과 궤를 같이 하고 후자는 위정자나 권력집단의 의식과 궤를 같이 한다는 언급이 가능하다. 결국 적강소설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란 설문을 마련해 놓고 세계관이 서로 다른 계층을 끌어들이어 논쟁을 붙인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천상계, 자의식, 운명, 천인관계론 (the Heaven, self-consciousness, destiny, jeokgang)

참고 문헌

黃中允, “玉皇記”, 《三皇演義》

憑 寓(1988), 《天與人》, (김갑수 옮김(1993), 《천인관계론》, 신지서원)

金東協(1989), “玉皇記 考察”, 《伏賢漢文學》 5, 伏賢漢文學會.

金一烈(1984), “朝鮮朝 小說에 나타난 孝와 愛情의 對立”, 《朝鮮朝 小說의 構造와 意味》, 螢雪出版社.

----- (1991), “劉忠烈傳”, 《古典小說新論》, 새문社.

서대석(1985),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 출판부.

成賢慶(1981), 《韓國小說의 構造와 實相》, 嶺南大 出版部.

신태수(2002), “귀신등장소설의 본질과 그 변모과정”, 《語文學》 76, 韓國語文學會.

이상구(1991), “숙향전의 현실적 성격”, 《古典文學研究》 6, 韓國古典文學會. 趙東一(1977), “英雄小說 作品構造의 時代的 性格”, 《韓國小說의 理論》, 知識産業社.

----- (1983), “興夫傳의 兩面性”, 《韓國古典小說研究》, 새문社

진경환(1993), “영웅소설 통속성 재론”, 《민족문학사연구》 3, 민족문학사연구소.

車溶柱(1989), 《韓國漢文小說史》, 亞細亞文化社.

최혜진(1998), “유충렬전 문학적 형상화 방식”, 《古典文學研究》 13, 韓國古典文學會.

黃涓江(1991), “淑香傳의 구조와 東洋의 豫定論”, 《고전소설의 이해》, 문학과비평사.

※ 이 논문은 2003년 10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3년 11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3년 11월 29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